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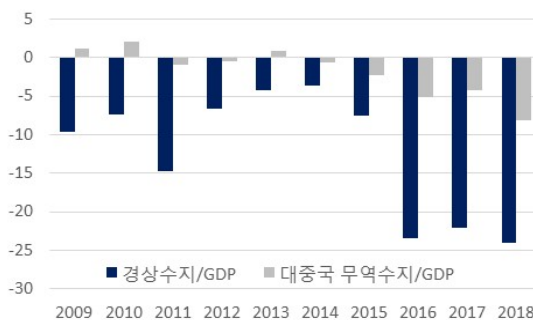
몰디브, 외국인 토지소유법 폐지로 중국 견제

- 지난 4월 15일, 몰디브 의회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허용한 토지법을 주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폐지함.¹⁾
 - 해당 토지법은 2015년 당시 친(親)중국 의회에 의해 1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개정된 바 있음.
 - 개정법이 폐지되면서 개정 이전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의 몰디브 토지 소유는 불가하며, 최장 99년까지 임대하는 것에 한해서만 허용됨.
- 이번 결정은 몰디브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중국 노선 수정의 일환으로 판단됨.
 - 2018년 11월, 친인도 정책을 표방하는 이브라힘 솔리흐(Ibrahim Solih) 대통령의 취임에 이어 민주당(MDP)이 4월 6일 총선에서 압승²⁾을 거두면서 전 정부의 친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음.
 - 압둘라 야민(Abdulla Yameen) 전 대통령(2013~18년)은 통치력 강화를 위해 친중국 노선을 표방하며,³⁾ 일대일로⁴⁾의 일환으로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도입하고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친중 정책을 확대한 바 있음.
 - 이에 반하여 솔리흐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과의 FTA를 비롯해 전 정부의 대중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 밝힘.
 - 이는 전 정권 아래 지나치게 높아진 대중국 경제의존도로 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된 데 기인함.
 - 솔리흐 정부는 교량건설, 주택공급, 국제공항 확장 공사 등의 대형인프라 건설 사업 추진으로 인한 대중 부채가 2018년 12월 기준 약 14억 달러(GDP의 약 27%, 대외채무의 80%)로 추산됨에 따라⁴⁾ 일부 프로젝트를 폐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.
 - 최근 경상수지 적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중국 부채 규모는 몰디브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
 - 사업입찰 과정에서 뇌물수수 정황이 의심됨에 따라 관련 수사에도 착수할 예정
 - 2017년 12월 비준된 몰디브-중국 FTA에 대한 재검토 또한 진행될 예정임.

1) 토지법 개정 이래 실제로 매각된 토지는 없으며 주권 침해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.
2) 몰디브민주당(MDP: Maldivian Democratic Party)이 전체 의석 87석 가운데 65석을 차지했으며, 야민 전 대통령이 이끄는 몰디브진보당(PPM: Progressive Party of Maldives)은 5석 확보에 그침.
3) 몰디브는 1965년 독립 이래 꾸준히 친인도 정책을 표방해왔음.
4) 이브라힘 아미르(Ibrahim Ameer) 몰디브 재경부 장관 언급 내용(Nikkei Asian Review, 'Maldives owes China \$1.4bn, says finance minister,' 2018.12.20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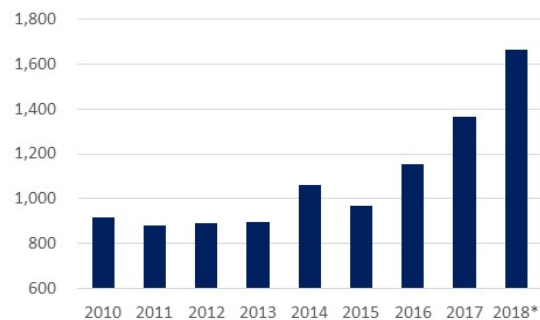
- FTA 비준 당시 야당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졸속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짐.
- 2013~18년(야민 정권) 사이 대중국 무역수지는 2,700만 달러 흑자에서 무려 4억 3,400만 달러의 적자로 전환됐으며, 대중국 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.7%에서 16.7%로 대폭 확대⁵⁾

그림 1 몰디브 경상수지 현황
(단위: GDP 대비 %)



자료: IMF 바탕으로 저자 작성(검색일: 2019.4.30.)

그림 2 몰디브 대외채무 추이
(단위: 백만 달러)




주: *EIU 추정치
자료: CEIC, EIU (모두 검색일: 2019.4.30.)

- 몰디브가 전통우방국인 인도와의 관계를 빠르게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‘인도 우선정책(India First Policy)’을 추진하는 가운데, 중국과 인도 간 남아시아內 패권 경쟁에 귀추가 주목됨.
 - 인도는 몰디브의 친인도 정권을 환영하며 12월 정상회담에서 14억 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 지원을 약속했으며, 3월에는 비자발급 간소화, 지역사회개발,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몰디브와의 협력관계를 빠르게 강화하고 있음.
 - 야민 전 정권 당시 대규모 인프라 사업 투자를 앞세워 인도를 견제해왔던 중국의 역내 영향력은 일대일로 추진력이 약화되면서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.
 - 한편 중국의 대규모 자금력을 감안, 결국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도 있음.⁶⁾
 - 한편, 몰디브 외에도 파키스탄, 스리랑카, 부탄 등 남아시아 지역에서 인도와 중국 간 정치·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.
 - (스리랑카) 채무경감을 대가로 함반토타 항만에 대한 99년 운영권이 중국에 양도되며 중국의 역내 군사적 영향력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, 이를 견제하기 위한 인도의 공격적 투자 및 외교 작업이 집중되고 있음.

5) (출처: IMF DOTS). 2013년 대중국 수출 1억 800만 달러, 수입 8,100만 달러, 2018년 대중국 수출 5,700만 달러, 수입 4억 9,100만 달러

6) The New York Times, ‘Maldives Election Results Empower a Critic of China,’ 2019.4.8.

〈자료: Reuters, EIU, Nikkei Asian Review, CEIC, IMF 등〉



윤지현 연구원